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문학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문학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14시~16시
- 회의장소 : 온라인 심의
- 심의위원(가나다순) : 라문숙, 박시윤, 이성아, 조선희, 최민우

이 사업은 문학 및 문화예술 분야를 전공한 졸업자들 중, 특히 전공을 살려 취업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경험을 쌓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유관 단체에 근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이며 실무적인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는 국공립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하였다. 심의는 각 심의위원들이 1차 개별 전수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2차 온라인 회의에서 각 심의위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한 후 종합하였다.

각 단체의 2022년도 전시, 출판, 교육 등 주요 활동 추진실적과 2023년도 활동 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효과를 정성 평가하였으며, 본 지원사업의 주요 부문인 연수단원 운영 부문은, 연수단원의 직무 배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계획 등, 연수단원 운영계획 측면에서 구체성과 적절성, 충실성을 주로 고려하였다.

덧붙여 예술단체의 인적 투자 현황과 계획면에서는 단체의 직원 수, 특히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를 통해서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 수와 4대 보험 가입비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심의하였다.

심의위원들이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토론한 것은, 문화예술기관이 연수단원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가 여부였다.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 토대 위에, 연수단원 지원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배치가 가능한 단체인지, 업무배치 및 연수계획은 얼마나 충실한지, 그 계획이 실현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전년도 실적 대비 2023년도 계획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 여부도 논의하였다.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간략히 요약하면, 채용방법과 관련하여, 경력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다는, 졸업대상자 혹은 관심과 열의는 있으나 경력 부족으로 인해 관련분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채용 기회를 준다면, 이것이 연수단원 지원 사업의 애초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체로 공감하였다.

국공립분야는 대체로 오랜 역사와 지원 덕분에 활동의 규모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들로 짜여 있었으며, 사업의 성실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안정적이었

다.

민간분야에서는 활동계획 측면에서 단체의 연륜 차이로 인한 격차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났으나, 각 단체 및 출판사들이,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 지역성 특수성 혹은 문학 전문출판사로서 특화된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문학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출판사는 연수단원의 문학성을 평가하는 채용방법으로 지원사업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순문학 출판 이력이 짧아 아쉬운 점이 있는 단체의 경우에도, 연수단원 지원을 계기로 매년 활동계획이 점진적으로 특화되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엿보였다. 대체로 전년도에 연수단원 채용경력이 있는 단체들이 지원하여, 2023년도 연수단원 운영계획에서 다양성과 충실도가 제고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중에서도 문학분야의 경우에는 지원인원 대비 지원단체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소폭의 인원수 조정은 있었으나, 많은 단체를 지원할 수 있어서 심의위원들 모두 기쁘게 만장일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의 고충이 연수단원지원사업으로 조금이라도 갈증이 해소된다면, 무척 반갑고 기쁜 일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연수단원 지원사업의 취지가 최대치로 충족되어, 구직난에 처한 문학분야 졸업자들, 무엇보다 경력이 일천하여 유관 단체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인재들에게 그 첫 관문을 열어주고, 연수단원들이 이번 연수를 계기로 그 분야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여, 연수단원 지원자들의 경력보다는 문학에 대한 열의와 창의성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채용방법을 공고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시각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시각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14: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강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영규, 신현진, 이준희, 차기율, 최준식

본 심의 의원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본 프로그램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국미술의 발전과 예술인력의 경력 향상과 역량 강화가 목적임을 인지하고 이를 심의에서 고려할 기본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심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후보단체의 과거 전시 활동을 함께 반추하며 이들의 예술적 기여도, 연수단원 관리 및 운영 수행역량을 고려하여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연수 단원의 현실적인 숫자를 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이 설립된 단체, 혹은 역사가 깊은 단체라도 새로이 방향을 전환하여 이전 활동내용과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출발시키는 단체는 연수단원의 효율적인 교육과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시각예술에서 창작 및 실연 인력의 범주에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를 염두에 둔 아르코의 취지를 살려, 주제기획, 자체기획 비율이 낮거나 대관 전시가 주로 운용되는 예술 단체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심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연수 단원 운용 중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수행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하등급의 단체는 모두 E점을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업단체라고 해서 낮은 평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몇 특정 지원단체의 계획과 과거 활동내용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이거나 저조하다고 파악되는 단체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논의를 거쳐 채점을 진행하였고 정량평가 점수와 합산된 순위표를 두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수의 단체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하도록 연수 단원의 숫자는 다수의 연수단원을 신청한 단체라 하더라도 최대 2인까지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애 예술인을 우선배정하고자 하는 단체 중 정량 지표 제출이 누락된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근무 환경을 파악하는 등 업무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비장애인에 대한 매칭 인원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힙니다.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예술단체는 국가의 재정적 보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나 실험적인 자체기획을 운용하는 전시단체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희망이 피력되었습니다.

아르코에서 진행하는 정량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걸러지지도, 심의위원의 전수평가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지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연수단원이 인지도가 높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예술단체에 고용되는 경우 안정된 업무환경과 경력에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경험을 보장할 수 없다면 과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가? 둘째 이와는 정 반대로 소규모 단체에 고용되는 경우 지나친 업무량과 책임을 짊어줘야 해서 과부하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이 미리 확인될 수 있을까? 셋째, 학생이 추가되는 인턴 사원과는 달리, 연수단원은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라면 허드렛일만 한다면 1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은 지원 심의 과정에 다음과 같은 제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지원 후보단체의 조직도가 지원신청서에 제시된다면 지원 후보단체가 연수단원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할지에 대한 현실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연수단원은 무경험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 10년의 유경험자가 선발될 수 있으므로 연수단원이 활동하는 동안 역량강화를 고려한 업무분장에 배려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도슨트, 회계, 등 전문 업무역량 강화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더라도 연수단원 혼자 전담하지 않고 업무를 공유하는 규정이 도입되길 바란다.
-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홍보관련 인력으로 고용된 연수단원이라 할지라도 SNS 업데이트, 팔로우업과 같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순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얻도록 단체와 단원 사이의 계획이 필요하다.
- 연속으로 지원하는 예술단체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의 후 얻는 최하등급 참여 제한 뿐 아니라 모니터링 점수를 지표에 반영해 A부터 E까지 반영하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연극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연극분야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6일 (화요일) 10:00~16: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강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선욱, 오진호, 이영철, 이원희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연극분야) 사업은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들에게 문화예술기관 근무경험 축적의 기회 및 전문교육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34세 미만의 문화 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연수 단원을 고용하는 민간예술단체와 국공립예술단체에게 연수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심의 기준은 창작 및 실연 분야와 기획 경영 분야를 한정해서 각 단체들이 제출한 지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서를 중심으로 먼저 지원단체의 활동 실적과 향후 활동 계획, 그리고 각 단체가 고용할 연수 단원들의 채용계획 및 교육계획을 살펴보고, 연수단원들의 운영계획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활동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향후 활동 계획에서 연수 단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하였고, 3년간 연수 단원 채용 실적이 있는 단체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연수 단원 선발을 계획하거나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한 실적이 있는 단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었다.

또한 본 사업에 지원한 몇몇 단체가 다른 사업자로서 동일 공간에서 활동하거나, 친족관계로서 실제로는 공연이나 인원 및 공간을 공유하는 사실상 동일 단체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추후 정부 시스템에 부정수급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받았던 단체 중에서 지원금을 정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인건비를 규정에 따라 월별 집행하지 않은 단체도 감점 처리하였다.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심의위원이 각 단체들을 평가한 점수를 입력하고, 그 결과에 따른 단체들의 성적을 산출하여, 최고점을 받은 단체부터 순서대로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심의위원들은 모든 문화 예술을 전공한 젊은 예술인들이 연극단체들에 고용되어 예술활동의 현장에서 필요한 실기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자유롭고 수준 높

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오늘도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든 예술단체들과 연극 예술가들의 노고, 그리고 꿈을 가진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에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심의평을 마친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무용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무용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14: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강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백의선, 서성훈, 송영선, 신상미, 채명순

2023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사업은 공연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에 (10개월간) 연수단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들이 문화예술계에 입직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은 물론 전문교육 제공을 통해 사회에서 역량 발휘함과 동시에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신청 사업에 대하여 단체가 제출한 서면신청서를 기반으로 사전 전수검토를 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단체의 활동지표 및 전반적인 운영 현황, 연수단원 채용과 관련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세심하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2023년 연수단원지원사업에 적용되는 장애인채용 신청 단체에 대하여 우선 선정원칙에 의한 연수단원 선정 및 인원 배정을 수행하였고, 2022년 연수단원 운영 모니터링 결과도 고려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무용분야 민간단체 성장에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소함에 따라 보다 많은 단체의 참여를 위해 장애인 고용단체를 제외한 선정단체의 연수단원 인원을 1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공연예술계 활동을 위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 2023년도 단체가 계획하는 무용예술 활동이 다채로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단체 활동으로 연수단원이 실무도 익히고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무용부분 지원사업에 동참해 주신 모든 단체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음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음악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10:00~17: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강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유진, 김종민, 박재성, 안미현, 최영미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의 예술분야 전공 졸업자에게 문화예술기관 근무경험 축적의 기회와 직무교육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지원신청은 134건으로 참석한 심의위원 모두가 공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에 임했으며,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및 계획, 연수단원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연수단원 채용을 계획한 신청단체의 우선 선발을 적용하였으나, 상근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 예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추가 심사하였다. 장애인 채용으로 우선 선발된 단체는 2023년 3월까지 채용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향후 취소 건을 대비하여 예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심의회의에서 지원단체 선정 시, 연수단원이 해당 단체에서 근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연수단원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단체 및 지원인력의 변화 가능성을 꼼꼼히 챙기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인원을 배정하였다.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음악분야는 총 54개 단체, 연수단원 98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단체는 연수단원이 역량강화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향후 지원신청에 있어 본 사업의 목적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연수단원 채용 시 단체의 연간 프로그램 계획과 직무계획의 명확한 연계성 등을 중요하게 감안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10:00~16: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강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성우, 노은아, 이관웅, 차예지, 최영미

연수단원 지원은 만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 청년들이 문화예술계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입직과 전통예술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본 심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 단체의 2022년도 활동 실적과 성과, 2023년 단체 활동 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2023년도 연수단원 직무배치, 역량개발, 운영계획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전수검토제로 진행되었다.

토론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단체의 교육이나 관리 없이 연수단원에게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도 논의하였다. 공고한대로 장애 예술인 채용을 계획한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 원칙에 따라 평가하여 인원을 배정 하였으나, 신청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종합순위에 따라 지원 인원을 배정하였는데, 전통예술 단체 운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하면 많은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다.

심의위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전통예술 전문 예술단체에 대해 지원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국공립 단체는 민간단체와 별도로 심의하였는데, 배정된 예산에 비해 신청이 저조하여 민간에 비해 경쟁률이 저조하였다. 관련하여 국공립 단체 잔여예산은 지원 단가가 달라 민간에 지원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는데, 민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수단원을 상업적인 축하공연에서 공연하게 하는 등의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예술위에서 연수단원 직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연수단원 지원이 전통예술 단체 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에게는 위로를 보내며, 희망을 잃지 말고 2023년 예술활동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어 다시 지원 기회를 얻게 되길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문화일반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문화일반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4:00~18: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강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경규, 서희정, 양창섭, 정철, 최영주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은 민간예술단체 및 국·공립예술단체의 연수단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여 문화예술분야 전공자들이 문화예술계 현장에 진입하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그리하여 문화예술분야 전공자들이 필요한 경력을 쌓고 향후 정규직으로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의도를 둔다.

2022년도에는 민간예술단체 57개 팀과 국·공립예술단체 22개 팀 통합 79개 단체가 지원 신청을 하였다. 먼저 심의위원들은 개인별로 각 지원신청서를 2022년 활동실적, 2023년 활동계획, 2023년 연수단원 운영계획의 3개 영역을 대상으로 사전전수검토를 수행하였다. 심의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사전 검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개인 평가를 완수하였다. 최종 심의는 심의회의에서 진행된 심의결과에 예술위원회에서 사전에 평가한 계량지표 결과를 합산하여 지원신청단체 순위를 결정하였다.

심의 과정은 현재 지원 단체의 사업 규모, 이전 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성취도와 성실성, 연수단원의 만족 예상 정도를 반영하면서 공모사업의 유형별로 사전에 배정된 선정인원에 맞게 지원 규모를 평가, 순위를 정하였다. 최종심의 과정에서는 연수단원지원사업의 장애인 우선 선발 원칙을 준수하고자 추가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신청 단체의 정량 지표 실적이 부재하거나 여건이 미흡한 점, 그리고 지원 영역이 적합하지 않았던 점을 검토 재확인 하였다. 또한 지원 신청 단체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운영 여건이 여유 있어 보였어도 연수단원의 입장에서 예상 만족도를 고려하여 배제하지 않은 채 지표대로 평가하였다.

본 사업은 연수단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문화예술계 현장 진입하고 향후 정규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 연수단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단체, 연수단원의 만족도가 높은 단체, 신청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준 단체가 긍정적인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선정 단체들은 특히 이 사업이 연수단원을 위해 조성된 사업임을 유념하여 그들의 역량 강화와 증진에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

심의위원들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나 제한된 배정 인원으로 인해 많은 기회가 공유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 장애인 선발

우선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를 맺지 못한 것 역시 유감으로 생각한다.
선정 지원 단체와 연수단원 모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적인 결과를
맺기를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